제1강 생명, 살림, 모심의 미학 원리

(1교시)

지금까지 민족미학에 대해 강의를 많이 하고 책을 내기도 했지만, 더 이상 '민족미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후배들이 김지하를 타도해야 한다. 내가 논리적 근거로 채택한 숫자 개념들, 소위 삼수분화론(三數分化論)과 일수분화론(一數分化論), 그리고 이들이 결합된 형태의 혼돈의 질서, 이 세 가지 논맥(論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지금은 첫 접근이기 때문에 인정되겠지만, 곧장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이제는 '민족미학'이라는 이름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개인적 미학에 접근하겠다. 철학적 사유 구조에 명백하게 근거하는 미학이 아니라,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시적 수필이랄까, 소묘식으로 접근하고, 또 그것을 텍스트로 하여 다시 강의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는 후배들이 본격적인 미학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떤 촉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2강은 남이 나에 대해 한 이야기를 내가 다시 취급하는 시간이다.
나의 미학적 사유를 철학과 생태학에서 보는 시각을 통해 그 단초나마 포착해보고, 나의 생명학적인 근거 위에서 미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테마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 미학적 스케치의 출발점이나마 잡아보자는 것이다.
이기상 교수(한국외대 철학과)와 문순홍 선생이 철학과 생태(정치)학에서 포착한 나의 미학적 원리들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한다.

3, 4강에서는 서구 과학의 최근 동향, 또는 동양의 과학, 과학적 인식이라고 부르는 주역,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고대 음악이라고 불리는 율려와 미학적 접근과의 관계를 다루어본다.

5, 6강에서는 역철학을 다루어본다. 최근 우실하 교수가 펴낸 『전통음악의 구조와 원리』라는 책에 나타난 삼태극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중국의 철학, 특히 역철학의 태극 구조과 음양론을 살펴본다.
또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율려(律呂)', '여율(呂律)'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언제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원형을 제시하는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날 문명의 대전환기에도 어떤 원형을 제시할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한 들뢰즈가 '카오스모스'라고 부른 혼돈의 질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미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

7, 8강의 주제는 나 자신이 탐구하려고 하는 주제로서 '흰 그늘'이다. 하얀 어두움, 하얀 검정. 이 역설, 형용모순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에 붉은 악마가 제시한 세 가지 명제-엇박, 치우천왕(蚩尤天王), 태극기 이 세 가지에 어떤 문명사적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본다. 이처럼 흰 그늘과 붉은 악마의 세 가지 명제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이를 미학적 소묘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잡으려고 한다.

www.artnstudy.com

(2교시)

※ '풍류와 한살림' 일부

김지하에 의하면, 우리가 찾아서 정립해야 할 바람직한 과학은 '살림의 과학'이다. 살아 생성하는 삶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살아 있는 그대로 그 발견을 적용하여 산 것을 그 생명의 '결'에 따라 더욱 살리는 도덕으로서의 과학 본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살림'이다.
주역은 세계를 '생생존존(生生存存)'하게 하는 것이 참된 도덕의 문이라고 말한다. 과학은 본디 천도와 천덕에 대한 탐구와 체현이므로 곧 도덕 자체이다. 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 혁명이요, '살림'으로서의 과학의 기능 회복이다. 이것은 객관적 관찰주의나 가치중립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디 우리말의 '살림'이란 집안살림, 부엌살림 등을 중심으로 한 살림살이, 사람의 생명과 그에 관계된 가구와 집과 채마밭과 마당과 닭, 돼지, 화초, 아이들,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하고 오묘한 대중적 언어이다.

우리 사상의 근원은 '풍류'에 있다. 최치원은 <난랑비서(鸞郞碑序)>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유불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과 접촉하여 이를 감화시킨다." 유불선을 모두 포함했으니 유교의 복례와 불교의 일심과 선교의 무위자연을 다 갖추었으며 그 핵심이 하느님과의 합일에 있으니 또한 기독교도 포함한다. 군생을 감화시킨다 했으니 인간과 천지의 일체중생을 모두 살리고 화해시키는 사상이다. 풍류는 모든 훌륭한 외래사상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우주와 인간의 합일, 모든 인간과의 협동, 자연과의 화해를 중핵으로 하고 있다. 풍류 정신은 '한, 멋, 삶'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에는 하나, 하늘, 우주, 크다, 바르다 등의 뜻이 있고 '멋'에는 흥과 율동, 조화와 자연스러움, 자유와 내실 등의 뜻이 있으며 '삶'에는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개념과 살림살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요즘 말로 간단히 요약하면 '한살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살림'은 철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한'은 '하나, 하늘, 우주, 크다, 바르다'이기도 하고 조그마한 낱개를 말하기도 한다. '하나', '둘'할 때의 '한'이자 또 '한 중간에'라고 하면 '중간쯤 어디, 복판 어디'를 말한다. 또 '한 두어 시간 전에'라고 하면 '약, 대략'을 뜻한다. 이 여러 가지 뜻이 모두 통하는데, 우리 삶의 미묘한 영역을 꼭 짚어내는 말이 바로 '한'이다.
우리나라의 '한'은 원래 '한울님'이다. 창공을 뜻하는 '하늘님'도 되고 하나를 말하는 '하나님'도 되고 한 울타리를 뜻하는 '한울님'도 된다. 이 '한'은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어 있는 차원에 더 가깝다.
생명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영적 세계에까지도 드러난 차원과 숨은 차원이라는 두 차원이 있다. 숨은 차원은 드러난 차원에 대해 개입·추동·비판·추정하다가, 드러난 차원·물질적 차원·가시적 차원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그것을 제거하면서 드러난 차원으로 눈에 보이게 개시(開示)한다. 이것의 역사적 형태는 르네상스나 산업혁명과 같이 큰 문명이 나타나는 혁명이다.

www.artnstudy.com

지금 인류문명은 '빅 카오스(Big Chaos)', '대혼돈'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정도로 황폐하고 전 세계적 시장자유주의에 의한 이상한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가 오염되어 있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상이변이다.
이것을 모두 대혼돈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처방을 제공할 탁월하고 통합적인 과학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통합적인 탁월한 과학을 만들어내려면, 통합적이고 탁월한 인문학적 담론에 의한 촉발이 있어야 한다.
인문학적 비전과 패러다임이 나와야, 또 그 이전에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으로부터 어떤 원형이 불꽃으로 나와야 과학이 촉발된다. 아직 전 지구적 과학은 러브록(Lovelock)의 '지구생리학'이라든가 '행성의학'과 같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아직 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 요즘은 디지털적인 것, 에콜로지, 생태학 등 여러 가지가 드러나 있다. 이 두 개의 차원이 연결되어서 드러나는 때를 '한살림'이라고 한다. 숨어 있는 한을 살림. 한살림을 미학적 개념으로 삼아 우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생명과 살림' 일부

김지하는 생명을 넓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의 구분이 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점차 철폐되고, 입자 물리학 등이 밝혀낸 것과 같이 입자 내에 이미 앎이 있으며, 상호 통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상호 통신으로 비약적 차원 변화를 한다는 점에서 복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진동, 순환, 팽창, 생성하는 모든 것은 영성적 생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살림'은 모든 물질의 운명적이고 거의 숙명적인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살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 모든 생명이 다 그렇다. 그러므로 이 살림을 살리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살림'이라는 말은 '죽임'의 반대말이다. 옛날 사람들은 죽음과 삶 사이에 커다란 괴리로 인한 불안, 초조,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요즘 세대에 죽음의 공포가 더욱 심하다. 이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죽임'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억압, 부자유, 결핍, 가난, 이런 것들이 모두 죽임이다. 우리의 활동은 이성적 활동이든 감성적 활동이든 육체적 활동이든 모두 개체적이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적 차원은 우주적이고, 우주 발생의 시원에까지 소급되는 원초적 무의식이다. 이 자유로운 허(虛)의 움직임이 억압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다스려지거나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영적·우주적 움직임이 훼손된다. 이 훼손과 억압이 인간에게는 죽임인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죽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죽임 전체로 볼 때 사람을, 하나의 생명을, 큰 우주적 움직임으로서의 한을 살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살리는 운동!'이라 하면 죽임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할 것이고, 이 죽임으로부터 살림을 시작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인간과 동식물, 비인격체까지 포함한—을 우주적 공동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큰 시야가 열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식의 철학인 것만은 아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 미진함천(微塵含千)이라 해서 하나의 티끌 안에도 시방[十方], 우주가 있다 하고, 서양의 어떤 시인도 "조그마한 갈대 안에 우주가 살아

www.artnstudy.com

있다."고 한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더라도, 즉 물질 안에도 앎(mind)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에서도 이제는 모두 물질 안에 핵이 있듯이 모든 존재에는 마인드(앎, 혼, 넋, 정신)가 있다고 한다.
오늘날 진화론은 자기조직화의 진화론이며, 환경정의 진화론이나 약육강식의 다위니즘이 아니다. 자기조직화는 주체를 필요로 하고, 이 조직화의 주체는 물질의 가장 깊숙이 있는 마인드이다. 이것이 물질상태에서는 핵이 되겠지만, 생명을 가진 것 또는 인간에게 오면 굉장한 영능(靈能)이 있는 영혼입니다. 이것을 살리려면 '모심'부터 시작해야 한다.

※ '모심' 일부

김지하는 여러 가지 과학에서의 발견을 증거로 들어 유기물과 무기물이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생명의 자기 조직화 과정임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그 진화 과정이 깊은 영성의 창조적인 활동에 연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로 생명의 영성 활동과 그 깊은 곳에 '활동하는 무'가 진화의 자기 선택과 개별화 발생의 근거로 활동하는 자유의 바탕임을 강조한다.
물질 운동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로서의 생명이 잠복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깊은 곳에 자유의 근거인 '활동하는 무'가 생성한다고 보는 것이 입증하기는 어려워도 설득력이 있다고 김지하는 말한다.
세포끼리의 정보 교환에 대한 이론이 노벨상을 받았다. 정보 교환, 즉 커뮤니케이션은 세포 속에 일종의 앎이 있다는, 다시 말해 생명 총체에서 포괄적 영성이 활동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김지하는 일리야 프리고진을 끌어들인다. 프리고진은 물에 열을 가하였을 때 그것들이 무질서하게 비등 요동하면서 물 입자들 사이의 극도로 복잡하고 끊임없는 정보 교환, 즉 의사소통이 일어나며 바로 그 소통 과정이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 비약, 곧 차원 변화임을 밝혔다. 이러한 물질 입자 안의 앎을 김지하는 영성이 살아 있다는 표식으로 보며, 영성이 살아 새 질서를 창조하고 있음이 바로 생명 활동이라고 말한다.

www.artnstudy.com